

해외양돈뉴스

WORLD PORK NEWS



| 미국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 부상 중 1위 EU와 격차 01년 60%서 15%로 줄어

미국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는 미국과 EU 캐나다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수출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미국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EU와 캐나다, 미국의 01년 돼지고기 수출량(미 농무부 자료)은 각각 113만5천톤, 72만8천톤, 70만7천톤으로 미국이 3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143만톤, 107만5천톤, 122만9천톤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따돌리면서 2위로 올라섰다. 또한 미국의 올해 4월 말 돼지고기 수출량은 43만1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 증가하면서 캐나다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 금년 말 예상치는 미국 126만3천톤, EU 145만톤으로 15% 가량 차이를 보여 01년 60%에서 격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가금육 및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한데다 미국 달러약세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돼지 복지인증 프로그램 개발

미국에서 양돈농가의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복지 인증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돈육품질보증추가' (PQAP)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양돈복지 보증 프로그램에 돈육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성격이 더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돈농가와 정육업체, 육류 유통업체, 식당 및 관련 협회들로 구성된 양돈업 동물복지연합이라는 단체에서 1년여에 걸쳐 개발했으며 교육, 현장평가, 인증, 심사과정을 통해 동물 복지는 물론 돈육 품질에 대한 인증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 일본

국민 60% “美 쇠고기 먹지 않겠다”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기로 한 가운데 일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산 쇠고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14~84세 남녀 1천59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미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60% 였다고 밝혔다. 또한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96%가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 육류서 반입 금지 쇠고기 적발

최근 일본 세관 관리들이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칠면조와 돼지고기 허벅다리 부분에서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가 포함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성명을 통해 세관 관리들이 지난 7월 10일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칠면조와 돼지고기 허벅다리 제품 3천여 상자를 검사하던 중 한 상자에 구이용 쇠고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일본이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

치를 해제하려는 시점에서 발생해 미국의 수출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베트남

구제역과 전쟁선포

베트남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 대량으로 백신을 사용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처방은 구제역 발생지에서부터 북부 베트남, 남서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소비자들은 구제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대신 닭이나 해산물을 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구제역이 베트남 44개 지역과 도시에서 발병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구제역 관리체계 강화

필리핀이 구제역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구제역이 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구제역 방역비로 연간 20만 페소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 소속 검역관과 지방 검역관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게 될 대책본부는 도시로 유입되는 불법 동물, 육류, 축산물을 차단하는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 중국

1분기 축산물가격 하락

중국의 1분기 축산물 가격이 1.6%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생돈과 가공육의 가격하락이 전체 축산물 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으며, 생돈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 하락

은 중국 내 육류총생산량이 증가해 전체 시장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말 질병에 대한 우려로 감소한 시장수요가 회복되지 않았고, 축산물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한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부 재개

중국은 최근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농업부는 지난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자세한 수입 조건은 중국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AQSIQ)에 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 칭하이, 구제역 발생

중국 농업부는 지난 6월 간쑤성에서 구제역이 재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1일 중국 칭하이성에서 '아시아1형'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칭하이성 허난현 저우룽 마을에서 사육되는 소에서 질병이 발생되어 지난 7월 6일까지 3개 사육농가의 51두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농업부와 칭하이성은 해당지역의 소 반출입을 봉쇄하고 감염된 소를 포함해 총 212두를 살처분하는 등 방역작업에 돌입했다.

| 캐나다

앨버타주 7번째 광우병 확인

캐나다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됐다. 캐나다 식품검사국은 지난 6월 30일 매니토바주에서 예비조사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어 지난 7월 13일 앨버타주 에드먼턴 지역에서 첫소 한 마리가 광우병(BSE)으로 죽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후 50개월 된 암소가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처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이후 이번이 7번째이다.

이 젖소는 아직 우유를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가축의 뇌나 장기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난 1997년보다 약 5년 후에 태어난 소로 확인되어 축산당국이 또 다른 광우병 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

500개 종돈장 보유 대부분이 자가채취 정액 사용

연간 2천6백만두의 돼지를 생산하는 프랑스에서 국제농업전시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프랑스 양돈산업은 약 4만6천호의 양돈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약 500개 정도의 종돈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모두 6만8천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뉴클러스사가 115개 종돈장과 1만5천700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에는 563만도즈의 정액이 130만마리의 모돈에 인공수정으로 쓰이고, 90%의 농장에서 인공수정이 실시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프랑스 대부분의 농가는 자가채취 정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400두 이상의 기업형 농가 중 70%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AI센터에서 정액을 구입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16%이며 이는 프랑스 모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돈육 부족사태 직면

우크라이나 육류 생산자협회(Ukrmyaso)에 따르면 2006년 우크라이나의 돼지고기 수요와 생산의 차이가 45만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육류가공회사들이 심각한 돼지고기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됐으며, 수입관세 2/3를 줄여 국내 돼지고기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육류가공산업은 현재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육류가공공장

이 육류가공 및 육류생산 1번지인 케이브지역에서 120k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새 육류가공공장은 네덜란드 가공공정 전문기업인 CFS 장비와 설계에 따라 하루 평균 100톤의 육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240톤까지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

돈열 네덜란드까지 근접

독일의 돈열이 네덜란드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독일 북부 라인강 지역인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새로 돈열이 발병하자,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가축수송 차량들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는 방역 및 위생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3월 할터른지역에서 처음 돈열이 발생했으며, 당시 독일은 발병 인근지역의 의심 돼지 10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차량을 철저히 통제했었다. 그러나 이번 돈열 사태는 독일의 돼지고기 무역에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로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아일랜드

양돈 생산 및 경쟁력 '퇴보'

최근 아일랜드 양돈산업은 현대적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생산 및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돈장은 인력이 부족해 노동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험있는 노동력이 없는 상태고 양돈인력 양성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또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는 현재 약 180만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의 연간 돼지 생산두수는 300만~340만두로 나타났고 이중 절반이 북아일랜드의 가공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평균 도축체중은 1995년 65kg에서 현재 73kg이며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은 연간

| 세계

옥수수 수요급증으로 가격 강세 예상

옥수수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국제가격이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에탄올 등 대체 연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그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이 폭증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월 중순 현재 미국 톤당 옥수수 가격은(C&F기준) 150.6달러로 전월 평균에 비해 5.6달러 올랐으며 지난달 20일 기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08년 12월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당(25.4kg) 3.11달러로 올 초보다 무려 34%가 올랐다.

이 같은 옥수수 값 강세는 미국 내 에탄올 생산

량 증가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미국의 옥수수 추출 에탄올 생산공장은 39곳이 더 늘어 에탄올 생산량도 현 생산수준인 연 46억갤런에서 30% 증가한 59억갤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미 농무부는 올해 미국 옥수수 수확량 105억5천만부셸 가운데 14%인 14억8천만부셸이 에탄올 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에 비해 4%p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은 사료용 옥수수가 부족해져 축산농가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식료품 가격 인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관련업계는 이와 관련, 에탄올 제조를 위한 옥수수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 '09년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35%가 에탄올 제조에 쓰이게 돼 옥수수 가격이 2~3년안에 부셸당 4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38.4kg이다.

| 체코

돼지고기 수입량 대폭 증가

2005년 체코 돼지고기 수입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총 11만 4천6백톤으로 집계됐다. 체코의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독일이며, 폴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수입량이 증가한 원인은 체코내 돈육산업의 비경제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돼지 사육두수는 272만두,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대비 10% 떨어진 34만톤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6년 체코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체코 양돈시장 전문가들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올해에는 2~3% 증가한 35만톤으로 증가하고, 주로 슬로바키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양도

50% 증가한 2만1천4백톤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 네덜란드

양돈농가 소득, 전체농가 평균보다 높아

네덜란드 양돈농가의 소득이 전체 농가평균 소득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네덜란드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평균소득은 6만유로(약 6천500만원)로 전년비 30% 가량 상승했다. 이 가운데 양돈농가의 소득은 13만6천유로(약 1억4천730만원)를 기록,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 한편 네덜란드의 돼지사육두수는(05년 6월 기준) 1천120만두 가량이며 작년 돼지 생산두수는 2천76만두로 전년 2천25만6천두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양돈**

